

“탄광 폐광에 연탄기부도 끊겨... 겨울이 두렵네요”

에너지빈곤층 겨울나기 현장탐방

① 막막한 난방

연탄공장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욱 막막하게 만들고 있다. 도심과 떨어진 도서지역은 특히 더 그렇다. 본보는 생활비 한 푼 아끼워 하루 연탄 3개에 몸을 녹이며 살고 있는 판자촌, 1년에 한번 배로 연탄을 공급 받는 도서지역 등을 찾아가 그들의 삶의 애환을 들어봤다. 취재를 마친 뒤 타 지역 우수사례·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광주·전남의 연탄불이 꺼져가고 있다. 지역 유일의 연탄공장과 탄광이 문을 닫았고 불경기 등으로 나눔의 손길마저 줄고 있다. 막막함 속에서도 연탄을 사용하는 지역 5000여 가구가 당장 올 겨울나기가 두렵기만 하다.

11일 밥상공동체·연탄은행(연탄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전국 연탄사용 가구조사’에 따르면 광주 1096가구·전남 3975가구 등 총 5071가구가 연탄을 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연탄쿠폰’을 받는

광주·전남 연탄세대 5000가구 화순탄광 폐업 등 공급처 줄어 경기불황으로 연탄 기부 급감 정부 ‘연탄쿠폰’ 지급도 부족 신중한 정책 접근·지원 필요

수급자·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현장조사 및 연탄배달업자 자료 등을 토대로 범위를 확대해 조사한 결과다.

연탄은행은보고서에서 “올해는장기간 진행된 코로나19 여파, 고유가, 고물가, 세금인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연탄 공급처가 줄줄이 문 닫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지역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화순탄광이 지난 6월 폐광했다. 누적 부채 규모가 커지고 생산설비도 노후화되면서 118년 만에 문을 닫은 것.

광주 유일 연탄공장이던 남선연탄 역시

2023년 전주연탄은행
광주·전남 나눔 목표량
= 30만장
광주·전남 후원연탄 현황
= 6200장 (2.07%)



‘연탄쿠폰’ 가구당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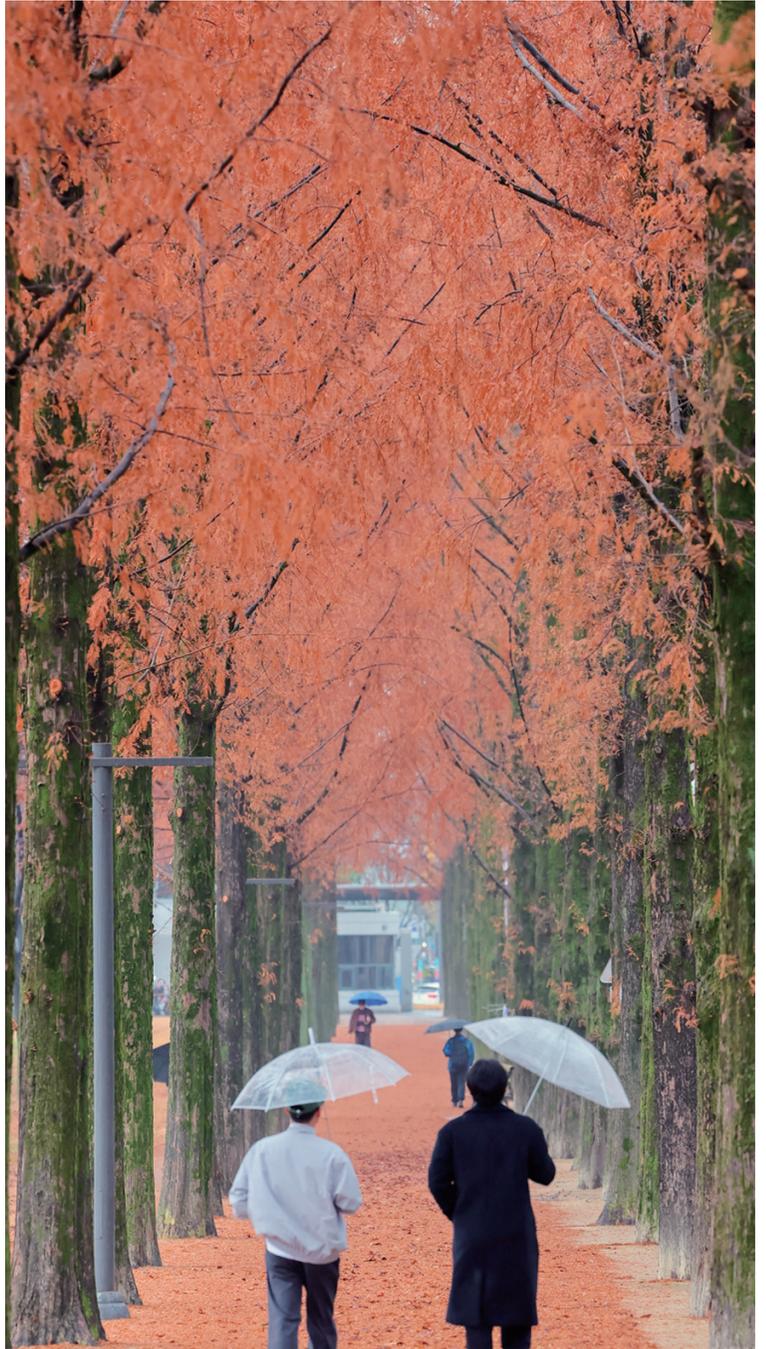
47만2000원 (2022) → 54만6000원 (2023)
= 7만4000원 증액

같은달 폐업 절차를 밟았다. 화순 화광연탄도 매년 주문량이 20%씩 주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선연탄은 광주·전남 25개 지역, 화광연탄은 화순과 여수 일부 지역에 연탄을 공급해 왔다. 당장 올겨울 ‘비상’이 걸리는가 싶었지만 다행히 연탄 수급 차질을 우려한 전남도의 요청으로 남선연탄은 지난 10월 임시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탄을 생산할수록 손해’인 것은 마찬가지라 다시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다.

설상가상 후원마저 급감하고 있다. 광주·전남은연탄은행이 없어 전주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수급받는 실정이다.

▶ 2면에 계속

강주비 기자 jub.kang@jnilbo.com



겨울비 메타세쿼이아길

겨울비 내리는 11일 전남대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까지 최대 40mm의 강수량을 예보했다.

나건호 기자

오늘부터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선거사무소 개소 등 가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11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각 지역 선관위를 통해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

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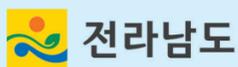
기탁금은 300만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4월2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청년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또는 29세 청년은 150만원, 30~39세 청년은 210만원으로 기탁금이 줄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개소, 선거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최황지·김은지 기자



귀농·귀어·귀촌 1번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1577-1425

전남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구청년정책관실
서울센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4층 1401호

전라남도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



전남귀농산어촌
누리집 바로가기



전남귀농산어촌
카카오톡 상담하기



귀농TIME
유튜브 바로가기

